

수원화성을 쌓아 올린 정조의 이상과 현실

거대한 성곽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고고학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수원화성 여행

황윤 지음, 책읽는 고양이, 2만1900원

지지기반이 취약함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도면밀한 실행력을 보여 준 정조의 이야기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수원화성 여행'이 출간됐다.

단행본 최초로 조선의 정조와 청나라 건륭제를 비교하는 독특한 접근이 눈길을 끄는 이 책은 '일상이 고고학' 가야·경주·백제 편을 쓴 황윤 작가가 저자다.

저자는 두 인물이 모두 문무를 겸비한 군주인 데다 그림과 시를 통치에 적극 활용하고 순행(巡行)이라 하여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직접 돌아다닌 것에 주목했다. 심지어 통치 기간마저 겹친다.

또한 저자는 수원화성을 매개로 병자호란 이후 긴장 관계를 이어가던 조선과 청나라가 정조 이후 어떻게 변모했는지 돌아본다. 특히 정조가 실리를 위해 건륭를 상대로 여러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낸 과정을

은 눈여겨볼 만하다.

영조에 이어 24세의 나이로 즉위한 정조는 처음 내린 윤음(諭音)에서 선대왕인 영조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재위 기간 내내 영조와 약속한 범위 내에서 사도세자의 추숭과 왕권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수원화성은 완공까지 10년을 예상했으나 2년8개월 만에 획기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총체적인 준비의 결과로 처음 설계를 맡은 장약용의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 검토와 거중기 등 기술적인 뒷받침이 큰 기여를 했다.

저자는 당시로서는 앞선 문화였던 중국의 성과를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수원화성에 적용한 사례 등을 꼼꼼히 기술하여 정조가 어떠한 성을 만들고자 했는지 이해를 돕는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올해도 대상 세븐틴 "만세"

2024 MAMA AWARDS

작년 이어 '올해의 앨범' 영예 '베스트 남자 그룹' 등 5관왕

빅뱅 재결합 무대에 환호성 지드래곤·태양·대성만 함께



(위부터)그룹 세븐틴이 엠넷 주최 대중음악 시상식 '2024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특별상인 '뮤직 비저너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특별상인 '글로벌 센세이션'의 영예를 안았다. CJ ENM

그룹 세븐틴이 2년 연속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수상했다. 세븐틴은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 재팬' 2일 차 행사에서 4개 대상 가운데 하나인 '비자 올해의 가수' 수상자로 호명됐다.

CJ ENM이 주최하는 마마어워즈는 1999년 시작된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초호화 급의 공연 스케일로 유명하다. 이에 국내외의 K팝 팬들을 주 시청자로 거느리고 있다.

세븐틴은 2015년 데뷔 후 지난해 처음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데 이어 또다시 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세븐틴은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상상은 자유라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2년 연속 대상 수상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상조차 못 해 봤다. 끝까지 보답하며 살겠다.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가겠다."(우지)

"작년 대상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주셨고 올해 대상은 '세븐틴답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다."(호시)

세븐틴은 이날 11번째 미니 앨범 '세븐틴스 해브'으로 '올해의 앨범'도 함께 수상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신설된 특별상인 '뮤직 비저너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그는 수상 직후 2014년 마마 어워즈에서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랩 가사를 인용해 "오랜만이네요. 마마, 큰 상을 차려나 봐"라고 익살스럽게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과 태양·대성이 함께하는 빅뱅 재결합 무대를 선보여 팬들의 응원 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드래곤이 먼저 '무제' '과워' 무대를 선보인 뒤 전날 발표된 신곡 '홈 스위트 홈'을 부르는 가운데 태양과 대성이 등장해 무대 분위기를 달궜다.

'선제 업고 튀어'로 대세 스타로 떠오른 배우 변우석도 이날 드라마 삼입극 '소나기'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변우석에게는 '페이보릿 글로벌 트렌딩 뮤직' 상이 주어졌다.

그는 "연기자인 제가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신 '선제 업고 튀어' 팀께 감사드립니다. 인혁아! 현수야! 제이야! 우리 상 탔다"며 이클립스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마마 어워즈 재팬 1일 차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4개 대상 중 하나인 '비자 팬스 초이스 오브 더 이어'를 받았다. 지민은 이날 본상인 '팬스 초이스 남자 톱 10'도 수상했다.

이 상에는 방탄소년단 정국·뷔·RM도 이름을 올렸으며 그룹 NCT 드림·투모로우바이투게더·제로베이스원·스트레이 키즈·세븐틴·엔하이픈도 함께 명단에 들었다. 군복무 중인 지민은 별도로 소감을 발표하지 않았다.

첫날 시상식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무대는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APT.)'였다. 두 사람은 마마 어워즈에서 '아파트'의 라이브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로제는 곡 후반부에 브루노 마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특유의 후렴구인 '아파트 아파트'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브루노 마스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한국어 소감으로 방청석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들은 공연에 앞서 특별상인 '글로벌 센세이션'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시상식의 여자 히로인은 단연 에스파였다. '올해의 노래'로 '슈퍼노바'가 선정된 데 이어 에스파는 '최고의 여자 그룹' '최고의 댄스 퍼포먼스 여자 그룹' '최고의 안무' '최고의 뮤직비디오' '팬스 초이스 여자 톱 10'을 휩쓸며 6관왕에 올랐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인간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까

과학자들이 사랑하는 과학 작가의 마음 물리학



우리를 방정식에 넣는다면

조지 머서 지음, 김소정 옮김, 현암사, 2만3000원

2024년 노벨물리학상은 물리학 연구로 인공지능(AI) 개발에 기여한 두 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인 존 홉필드는 인간 뇌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뉴런 활동을 모방하여 AI의 핵심인 인공신경망을 개발했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간 '우리를 방정식에 넣는다면'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을 비롯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 인간의 뇌와 의식에 관한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정을 담고 있다.

현대 물리학과 신경과학이 만나 정신세계의 비밀을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학자들은 인류를 상상할 수 없던 미래에 다가서게 한다.

수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아원자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 관찰하는 대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 세계를 연구하려면 물리학자들은 사람의 의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물리학의 범주를 넘어서 신경과학자와 철학자에게 질문을 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과학 작가인 조지 머서는 이 책에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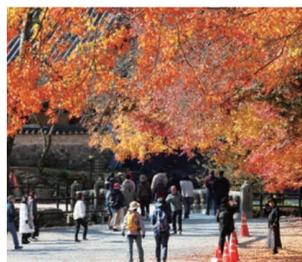
마음의 물리학이라는 미지의 영역,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양자학 △우주학 △인간의 정신 △인공지능을 탁월하게 상호 연결하며 이와 같은 질문들을 탐험한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지각 단풍에... 11월 나들이객 50% '쑥'

깊어진 더위 탓에 늦어진 가을 단풍의 영향이 국립공원 방문량에서도 드러났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전남 주요 단풍 명소인 장성군 백암산 백양사 일원의 단풍이 지난해보다 1주일 이상 늦게 물들었다.

'지각 단풍'은 국립공원 탐방객 추이에 반영됐다. 통상 남부지방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마지막 주말부터 11월 첫째 주말 사이 백양사를 찾은 가을 나들이객은 지난해 10만914명에서 올해는 7만2834명으로

약 28% 줄었다. 반면 이달 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1월 초중순 2주 동안 방문객은 17만56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8%(6만2205명) 증가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11월 중순에 절정을 이룬 장성 백양사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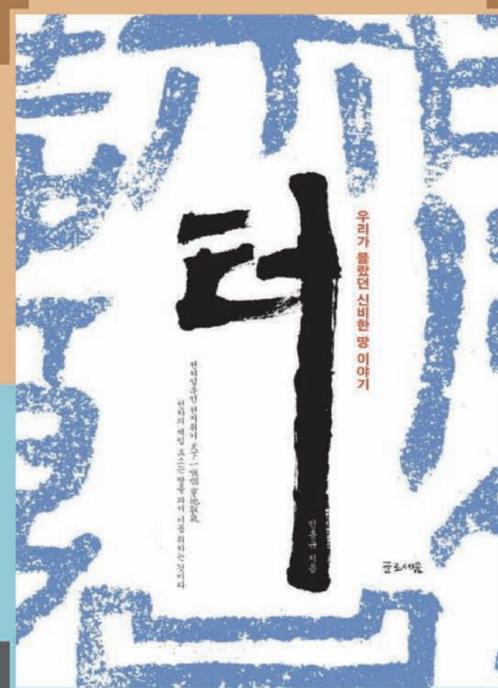
터 우리가 몰랐던 신비한 땅 이야기

4대 국새를 만든 세불 민홍규가 3년을 옥중에서 지내면서 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범부로서 이 터를 만나고, 터가 가진 기운을 일깨워 하나하나 모양새를 찾아가던 여정이다. 저자는 국새전각전에서 만든 대한민국 4대 국새가 폐기되고 혈처를 다스리는 거울바위 석경(石鏡), 거북바위 귀감석(龜鑑石), 솔바위 복석정(福石鼎) 중 세 번째 바위가 잘못 놓여진 이후부터 터의 울음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운이다. 땅의 기운이 크게 움직인다면 그 땅은 큰 생명 자체이다. 생명의 기운에는 질서가 있다. - 황종국 변호사

터를 열다

'진리는 본래 말이 없고, 무언이다.' 터가 진리가 되고, 때로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빛을 주기 때문이다.



지은이 민홍규 | 출판 글로세움